

## [大河기획 / 한라산 학술 대탐사(229)]

제2부 한라대맥을 찾아서(63)

병풍같은 산야에서 남쪽 바다까지

입력 : 2005. 01.21. 00:00:00



▲모라이 쪽에서 바라본 녹하지오름. 레이크힐스 골프장 한 가운데 솟아오른 오름 정상에 오르면 한라대맥의 서쪽 줄기가 병풍처럼 이어지고 남쪽 바다가 한 눈에 내려다보인다. /사진=강경민기자 qmkanq@hallailbo.co.kr

### 녹하지오름·모라이

세찬 눈보라가 몰아치던 지난 15일 서귀포시 중문동의 레이크힐스 골프장 안에 있는 녹하지오름을 찾았다. 녹하지오름은 골프장 한 가운데 있어 골프장을 통하지 않고는 접근할 수 없다. 녹하지는 겨울에 사슴(鹿)이 먹이를 찾아 내려오던(下) 길목이라고 해서 이름 붙었는데 지(旨)는 언덕을 뜻하는 한자어다.

녹하지오름 남동쪽의 알오름 일대는 4·3 당시 중문면당본부의 근거지였는데 군경토벌대에 의해 토벌된 곳이다. 이후 토벌대는 서귀포시 색달동 주민들을 동원해 이곳에다 성을 쌓았는데 작업에 동원된 사람들 중 생존자도 있다고 한다. 성터는 동서 25m에 남북 28m이며, 망루와 망루 사이는 10m, 망루높이 2m60cm, 성벽두께 2m30cm 규모로 현재는 원형이 많이 훼손돼 보존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녹하지오름 내 알오름을 끼고 도는 중문천에 커다란 비자나무가 서있다. 이어 녹하지오름 북서사면에는 수령 20살 안팎의 천연그루가 자생하고 있는데 보존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강영제 탐사위원(난대산림연구소)은 “녹하지오름 일대 비자나무 자생지는 자연상태의 균락지로는 국내 최대규모여서 자원화하고 보조하면서 숲으로 가꿔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녹하지오름은 오름 북쪽과 남쪽의 암석이 서로 다르고 표고 620<&27841>에 봉우리가 뾰족한 원추형오름으로 화구가 없다고 할 정도로 분화구가 뚜렷하지 않다.

이에 대해 정차연 탐사위원(농업기반공사)은 “남쪽 알오름 지역이 분화구 중심이었는데 용암이 많이 분출돼 분석구가 파괴되고 변형됐을 것”이라며 “오름산체가 만들어진 뒤 먼저 남쪽으로 용암이 흘러내려가고 이후에 상류에서 용암이 흘러내려 녹하지악 북쪽에 쌓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녹하지오름을 내려와 산록도로변의 모라이를 올랐다. 오름 이름 모라이는 ‘탐모라’에서 유추할 수 있는데 오창명씨는 ‘제주도 오름과 마을 이름’에서 ‘모라이’의 뜻이 확실치 않다고 밝혔다.

표고 511<&27841>로 얇은 오름이지만 경사가 심해 오르기에 꽤 벅차다. 모라이오름에는 예 비군초소로 보이는 조그만 건축물이 있는데 그 바로 밑으로 진지동굴이 하나 남아있다. 입구는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너비로 깊이 약 20의 이 진지동굴은 파다 만 것으로 보인다. 전쟁은 끝났지만 그 흔적은 오래도록 남아있다.

/특별취재팀

### [전문가리포트]강영제 탐사위원

제주도의 명소나 특산물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반드시 포함되는 장소가 구좌읍 평대리의 비자나무림이다. 약 45ha 면적에 3,000여본의 비자나무가 자라는 이 곳은 웅장한 비자나무의 자태와 청량한 향기로 많은 사람들의 탄성을 자아내는 명소이다.

비자나무(*Torreya nucifera*)는 식물분류학적으로 주목과 비자나무속에 속한 나무로서 세계적으로 비자나무속은 3종이 분포한다. 식물학적 특징은 키가 20~25m, 가슴둘레는 1m 이상 자라는 늘 푸른 침엽수이며, 잎은 마주나며 끝은 날카로우며 꽃은 암수 딴 그루로서 봄에 피며 열매는 추석 무렵에 익는다. 비자나무와 아주 비슷한 나무로 ‘개비자나무’가 있다.

한반도에서 비자나무의 분포는 제주도에서부터 전남 장성 백양산까지 분포하며 특히 백양산 비자나무림은 우리나라에서 비자나무의 북한계로 알려진 장소이다.

제주도를 제외한 내륙의 비자나무는 자연상태에서 자생상으로 자라는 모습을 보기 어렵고 대부분 사찰 주위나 보호된 장소에서 자라는 것이 보통인데, 과거부터 목재나 기타 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대부분은 벌채돼 특별히 보호하지 않으면 안되는 나무가 비자나무였다고 추측된다.

비자나무 목재는 결이 치밀하고 특유의 광택이 있으며 향기롭고 무늬가 아름다워 문목(文木)이라고 불리며 고급 가구재, 건축재로 사용되고 특히 습기에 강해 배를 만드는 데 사용되고 왕실 등에서 관(棺)재로 사용되어졌다. 비자나무 열매는 과거 구충제가 없던 시절 회충, 요충 특히 촌충의 특효약으로 널리 알려져 사용되었고 비자기름은 식용, 약용, 등불 기름 등 고급기름에 사용돼 제주도에 조공품에 반드시 포함되는 중요한 자원이었다.

제주도에서 비자나무는 한라산 해발 400~600m 사이에 드물게 분포하지만 이번 탐사 중 제주

도 서부지역 녹하지악 일대에서 대규모 균락이 발견된 것은 제주도가 비자나무의 자생지인 것을 다시 확인시켜주었다.

이번에 발견된 비자나무균락은 나무나이가 20년에서 30년생쯤 된 동령림으로 20m\*20m조사구에서 15~25분까지 분포하는 비자나무 균락으로 생육상태, 분포범위 등 실태를 보다 정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고 숲가꾸기 사업이나 기타 관리작업으로 제2의 비자나무림으로 가꾸면 학술, 관광, 환경적인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다.

<난대산림연구소/ 식생분야>

### [전문가리포트]정차연 탐사위원

녹하지악은 한라산의 남서쪽 사면 해발 약 520~540m에 위치하며, 행정구역상으로는 서귀포시 중문동에 속한다. 최근 언제부터인가 녹하지악을 빙 둘러 골프장이 건설됨에 따라 일반인들의 접근이 매우 어렵게된 오름이다.

평면상으로 거의 원형이지만 북동-남서방향이 약간 더 신장되어 있다. 입체적으로는 원추형모양을 보여주고, 사발형태의 중심분화구 또는 말발굽형태로 열린 분화구를 찾을 수 없다. 오름산체의 서쪽 끝으로 계곡이 형성되어 있고, 그 계곡을 따라 북쪽으로 오르면 스코리아(송이)와 화산탄으로 구성된 오름 화산체의 단면과 이를 피복하는 고지대에서 흘러온 용암류를 잘 관찰할 수 있다. 한편, 오름 산체의 남쪽으로 작은 구릉들이 굴곡을 이루며 형성되어 있어 마치 어미인 녹하지악을 따르는 새끼 오름들 같기도 보인다. 구릉들 중에서 가장 크고 높은 것이 녹하지악에 가장 인접한 남쪽에 형성되어 있다.

녹하지악을 구성하는 송이들과 그 남쪽의 구릉들을 구성하는 용암은 그 조성광물이 동일하다. 이와 동일한 성분을 가진 용암은 중문동 시가지를 거쳐 해안까지 연속되어 분포하며, 특히 주상절리로 유명한 대포동 지삿개 해안절벽 또한 이와 동일한 용암이다. 한편, 남쪽방향을 제외한 녹하지악의 주변은 녹하지악의 송이와 남쪽에 분포한 용암과는 다른 용암이 분포하는데, 이 용암은 한라산방향의 고지대에서 흘러내려 온 용암이다.

녹하지악 주변의 지질분포와 야외에서 나타나는 이들 사이의 층서 관계로 볼 때, 녹하지악의 화산활동은 분석구 형성을 전후하여 많은 양의 용암을 분출하였고, 아마도 후기에는 주로 용암을 분출하여 중문동 일대를 넓게 피복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의 녹하지악 분석구 화산체는 용암분출에 따른 산체붕괴, 화산활동 종료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침식작용 및 한라산 고지대 상류에서 흘러온 용암에 의한 피복과 같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전형적인 분석구와는 상당히 다른 형태로 변한 것으로 판단된다.

<농업기반공사·이학박사/ 지질분야>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